



박소현의 섹.시.토크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는 이런 장면이 있다. 해리와 셀리가 처음으로 섹스를 한 날, 해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섹스가 끝난 뒤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셀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 셀리의 지문에 의하면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는 아침까지 함께 있어주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P는 연애시절 그 장면을 보고 섹스만 하고 돌아가는 남자는 죄다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다. 섹스만 하는 관계보다는 같이 잠들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결혼도 서둘렀는지 모른다. 확실히 결혼을 하니 남자가 집에 가나 안가나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졌다. 옆에서 팔베개를 해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당연히 아침도 같이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 5년차가 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요즘 P의 소원은 섹스가 끝나면 남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다. 하긴 남편에게 따로 자기 집이 어디 있는가. 이 집이 곧 남편의 집이다. 시댁에서 사 주고 남편 명의로 된 엄청난 남편의 집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섹스 후에 이어지는 상황 때문이었다. 지금 P가 꿈꾸는 것은 섹스를 끝낸 남자가 샤워를 하고 상쾌한 샤워코롱 냄새를 풍기며 가벼운 입맞춤을 남긴 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다. 집이 없다면 적어도 자신의 방으로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P는 침대 속에서 벗은 상태만 살짝 내놓은 채 남자를 배웅하고는 단잠에 빠져든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남편은 섹스가 끝나면 바로 잠에 쏴아 떨어졌다. 후회 따위는 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몸에서 끈들을 제거하는 일이다. 덕분에 뒤치다꺼리는 늘 P의 몫이었다.

물티슈로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침대 아래 떨어진 끈들을 줍고 여기저기 내던져진 옷가지를 챙기고 나서 자신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기차와 통을 삶아 먹은 듯 엄청난 코고는 소리를 참아하며 잠을 청하는 것이다. 아침잠이 없는 이들이 새

벽같이 안방으로 뛰어 들어오기 때문에 잠자리의 흔적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했다.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닌 일인 것지만 5년간 혼자서 뒷정리를 하다 보니 부아가 치밀어 올라 터지기 일보직전이 됐다. P는 남편의 이런 행위가 긴장감이 사라진데서 왔으며, 섹스가 끝난 뒤 이 방에서 잠들고, 이 방에서 아침을 맞이하

는 것이다. 물론 남편의 반발은 거세했다.

"내 방 놔두고 왜 아들 방에 가서 자야 하나. 게다가 사정하면 바로 잠에 쏴아떨어지는 걸 알지 않느냐. 정 떨어져 자고 싶으면 내가 예 방에 가서 자라."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섹스가 끝난 뒤 바로 잠에 쏴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뒤치다꺼리도 본인이 하며, 다정한 상황을 나름대로 연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P의 주장도 쉽게 꺾이지는 않았다. 출장 한번 안 가는 남편과 일년 내내 한방에서 자는데, 일주일도 한번이라도 따로 자 보자. 이런 방법들이 권태기를 슬기롭게 넘기는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남편은 권태기라는 말에 겁을 먹었는지 '당분간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P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섹스를 한 날이면 남편은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베개를 들고 아들 방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P는 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려 약간은 서운하고, 약간은 자유로운 여자의 흥내를 내며 침대를 독차지했다. 외로운 여자 흥내 내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아니 아주 좋았다. 아가씨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아줌마에겐 고마운 일이 되기도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P는 오랜만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연애칼럼니스트>

섹스한 날에는 남편을 방에서 쫓아내라 외로운 여자 흥내 내기 아줌마에겐 활기로...

검색절정 키워드

이번 주 인터넷 세상은 유명 인사들의 자살과 이혼 소식이 이어지면서 우울한 한 주가 됐다.

전 해태 타이거즈의 스타선수였던 이호성씨가 일가족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명수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어 전해진 그의 투신 자살과 실종된 일가족이 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네티즌의 충격을 더해졌다.

결국 빛 독촉에 시달린 끝에 네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경찰 발표가 나오자 말을 아끼던 팬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살인·자살·이혼... 우울한 한 주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을 셋이나 잔인하게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부양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충격 그 자체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은 희생자의 미니 홈페이지를 찾아 추모의 글도 올리고 있다.

명세빈과 지누, 김준희 커플의 이혼 소식도 네티즌의 입방아에 올랐다. 명세빈은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네티즌을 더욱 놀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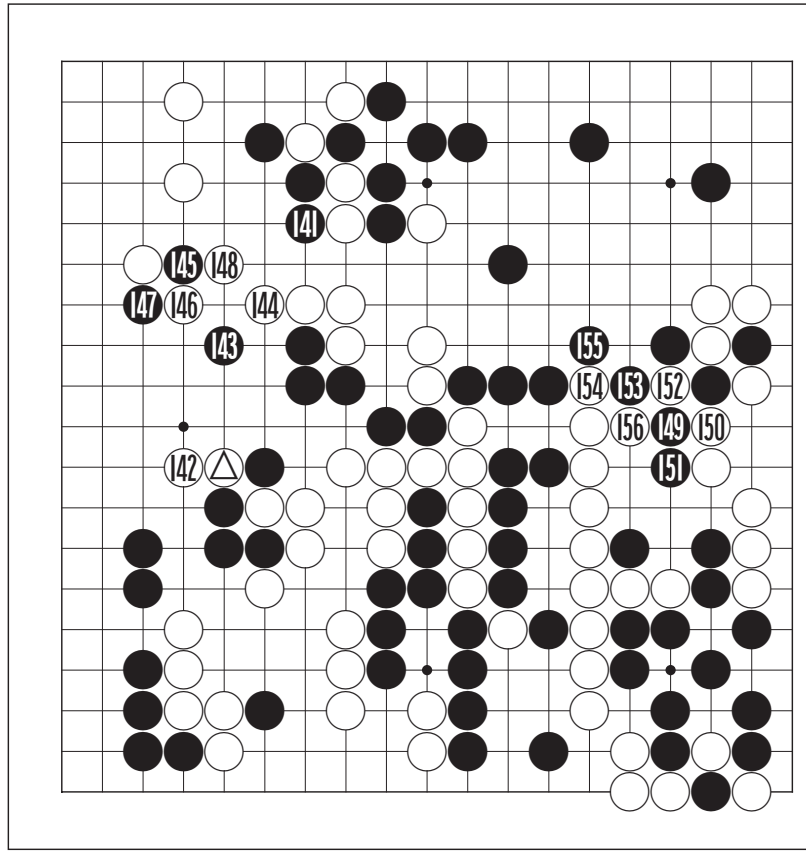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어 고민했었다는 뒷얘기가 전해지자 네티즌은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한 건지. 결혼은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갈라서 다니 안타깝다.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교 커플로 알려졌던 가수 지누의 이혼에도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며, 네티즌은 두 사람의 앞날의 축복을 비는 글을 올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명세빈.



시한폭탄을 터뜨리다 9보(141~156)

결승전 白 심재욱 6단 黑 정찬근 6단

천지대패를 벌이는 와중에 패를 따내지 않고 느닷없이 백 삼로 끊어간 수는 다소 엉뚱했다. 심재욱 6단은 어차피 패는 힘들다고 보고 이곳을 두었는데 흑도 받아주었다가는 팻감공장이 되기 때문에 노타임으로 흑 141로 패를 해소해 버린다.

이제는 좌변의 공방이 관건이다. 이곳이 몽땅 백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바둑도 끝장이다. 심재욱 6단 어차피 승부는 좌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찬근 6단 뜻밖의 초강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흑 143은 백의 응수를 보면서 여자하면 수를 내고 아니면 팻감을 많이 만들겠다는

일종의 응수타진이었다. 심재욱 6단 여전히 148까지 초강수로 잡으려 갔는데 아무도 예측 못한 흑 149로 두어 시한폭탄의 뇌관을 터뜨린다. 이 수는 정찬근 6단이 진작부터 노리던 수로, 백 대마의 사활이 걸린 천지대패가 또다시 벌어졌다. 보통 때 같으면 흑도 손해가 많아 결행하기가 쉽지않다. 그러나 지금은 좌변이 팻감이 부지기수라 백이 제대로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한상훈 신예기전 첫승 신고

한상훈 3단이 13일 서울시 스카이라이프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12기 SK 가스배 신예프로 10절전 B조 리그에서 김해민 5단을 맞아 175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최근 전자랜드배 청룡왕에 오른 한상훈은 이로써 올해에만 10승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같은 조에서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우승자인 김기용 4단, 박승화 2단이 나란히 1승씩을 거두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권효진 5단 등 10명의 신예 프로기사가 A·B조로 나눠 겨루는 이 대회는 각 리그 1위 기사들이 3번기로 우승을 가리며, 상금은 1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4일(음 2월 7일 癸丑)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7>

Let's go to a movie 영화 보러 가자. English and Korean dialogue for a movie outing.

오하오우 니혼고 <117>

今、ちょうど降(ふ)りはじめたところですよ. Japanese and Korean dialogue about the start of rain.

니하오 쑹구위 <94>

商场远吗? 상점은 먼니까? Chinese and Korean dialogue about the distance to a shopping mall.

한자 이야기 <704>

洞窟(동굴) 동굴 동, 굴 동. Article about caves and their cultural significance in Korea.